일단 먼저 3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졸업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것이 조금 버거웠던 것 같다. 특히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전혀 써본 적이 없었기에 한학기만에 혼자서 디자인과 개발을 한다는 사실이 많이 힘들었다.

또, 나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웹이나 서버를 사용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.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어지려면 서버가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. 하지만 교수님께서는 서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셔서 괜히 서버를 작동시키는 데에 시간을 썼다는 생각이 들어 아쉽다. 서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시간을 많이 쓴 것이 사실이고, 서버는 학교에서 가르쳐 주시지 않고 node js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학교 내에 아무도 없어 도움을 받을 길이 전혀 없어서 진땀을 많이 뺐었다. 서버를 구현할 시간에 기능을 조금 더 넣었다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.

주차를 이용한 어플리케이션에 생각보다 넣을 기능이 얼마 없어서 아쉬웠던 것 같다.. 주제선정을 기능을 많이 넣을 수 있는 어플로 했어야 했는데…

하지만 힘든 시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실력이 많이 늘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뿌듯하다. 주제를 바꾸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지만 처음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던 것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 다행이었다. 나름 구상해낸 기능은 구현을 다 해보았기 때문에 보람찼다.